

내 안에 차오르는 여성주의 물결 **움 · 펼 · 틈**

연세대학교 제 17대 총여학생회

fenergyup@yonsei.ac.kr

www.yonsei.ac.kr/~ysfem



www.yonsei.ac.kr/~ysfem

2005. 5호 11월 24일 발행

기획 여성주의자들의 Fenergy Up 활동기
특집 대학 내 여성공동체
어느 여성주의자의 좌충우돌 서바이벌 가이드
Ch. 3 여성주의자가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

그녀, 틈 사이로 바람은 불다

Jan San

2005.05

C O N T E N T S

02 기획 | 여성주의자들의 Fenergy Up 활동기

about sexuality • 02

결코 낯설지 않은 그녀들의 목소리

- 우리가 지금, 성폭력에 대해 들어야하는 이야기들 • 06

이주 여성 노동자를 만나다 • 09

연대활동, 함께 나누고 함께 외치는 즐거움 • 12

13~16대 총여학생회를 만나다 • 14

19 광고1 <그녀들의 외람된 수업 만들기> 자료집 발간

20 특집 | 대학 내 여성 공동체

우리 마음대로 꾸리고 싶다, 학내 여성공동체 • 20

연세대학교 내 여학생 공동체 소개 • 24

28 본지의 생각과 전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늘, 맘대로 와작와작 미디어 씹기

30 어느 여성주의자의 좌충우돌 서바이벌 가이드

Ch. 3 여성주의자가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

32 광고2

제3회 성폭력 생존자말하기대회

<그녀들의 소란, 공감의 세상을 열다>

※ 술래의 '여성주의 메모가'는 필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성주의의지들의 Fenergy Up 활동기



기획 | 여는 글

여성주의자들의 Fenergy Up 활동기

여성주의의지들의 Fenergy Up 활동기

그림 www.harukust.com



여성주의자들의 Fenergy Up 활동기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인 이번 호에서는
총여학생회 구성원들의 2005년 활동기를 기획해보았다.
여성주의자로 부지런히 뛰고, 말하고, 듣고, 묶어내고, 풀어내고...
바쁜 한 해를 보냈지만 아직도 못 다한 말이 많은 그녀들의 이야기.
어쩌면 이 글을 읽는 당신의 일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그리고 한 번쯤 만난다면 밤새워 함께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이야기들일지도 모르겠다.
그녀들의 Fenergy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유쾌하게 만들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성주의자들의 Fenergy Up 활동기〉를 열어본다.



About Sexuality

남자들은 원래 그래. 원래 모이면 '저 여자는 다리가 어떻다니, 저 여자는 가슴이 어떻다니' 이런 얘기를 한다고. 원래 그런 걸 나더러 어떻게 하라고, 네가 이해해야지. 아, 원래 그렇단니까?

언젠가, 남학생들이 반 내의 다른 여학생들을 성적으로 대상화해서 지껄이는 걸 듣고 문제제기 했을 때 남자선배가 했던 말이다. 그때는 어처구니없고 당황스러운데 뭐라 설명할 언어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한없이 억울하기만 했었다. 왜 나는 내 불편함을 설명할 수 없을까. 왜 굳이 나는 내 불편함을 그들에게 '설득'해야 하는 걸까.

〈그 남성들의 시선, 그 남성들의 지껄임,
그 남성들이 마음대로 재단해버리는 나의,
우리의, 여성들의 sexuality.〉

사실 정말이지 뻔뻔하다. 자신들의 시선을 성찰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원래' 그렇다는 말로 포장하다니. 너희들이 다른 여성을 성대화해서 바라보는 건 '원래' 그런 거고 내가 불편한 것은 '예민'한 거고, 그게 얼마나 무식하고 부끄러운 언행인지 평생이 지나도록 모를 테지. 그리고 아마 죽을 때까지 그런 말을 지껄이며 살 것이다. 그 앞에서 여성들은 예전의 내가 그랬듯이 당황할지도, 어쩌면 혼내줄지도, 어쩌면 가련하게 무시해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살아가면서 그런 말과 마주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편한 일이다.

섹슈얼리티는 간단하면서도 복잡한, 생활 그 자체다. 내가 어떤 옷을 입을지, 화장은 어떻게 할지, 나의 몸이 어떤 모습인지, 그런 내 몸을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사랑할지, 내가 누구와 어떤 섹스를 할지, 이런 것들은 다 내가 결정할 나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다분히 그들의 성적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성이기 때문에 '모두의 문제'가 된다. 너도 치마 좀 입고 다니지 그래, 치마가 너무 짧은 것 아니냐, 화장 좀 하고 다녀라, 화장이 그게 뭐냐, 살 좀 빼라, 그 몸매에 그런 옷을 입냐, 너 개랑 잤다며? 여성의 몸을 찍은 사진을 올려놓고 '즐거웠습니다' '박음직스럽군요', 술 치먹고는 길에서 만나는 여성을 붙들고 '나랑 좀 놀다 가자', 지하철비스길거리이곳저곳에서 시도때도없이 여성의 몸을 함부로 만져대고 성구매 경험을

자랑스럽다는 듯 떠벌리기. 그 남성들은 개별적인 여성이 어떤사람이고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저 그들의 성적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성'이라는 것밖에는. 이것이 무시무시한 성적 대상화의 현실이며 이 현실 속에서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정말이지 촘촘하게 억압되고 있다.

〈여성의 섹슈얼리티, 그 촘촘한 억압과
모호한 해방에 관하여〉
〈라퐁젤, 더 이상 참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런 촘촘한 억압망을 뚫고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온전히 여성의 경험과 욕망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말이 좋지, 그건 참 모호한 일이었다. 이제까지 말하지 못해왔던, 그래서 비워진 채로 있었던 섹슈얼리티를 도대체 어떻게 채워야 하는 건지, 나도 모르는 나의 욕망을 어떻게 말할 수 있단 말이야. 그 남성들이 '재단해버린 나의 섹슈얼리티'를 건어냄과 동시에 나의 언어로 그것을 채워야하는 데 말이다. 이런 고민을 고스란히 담아내고자 했던 섹슈얼리티 영화제에서는 〈소년은 울지 않는다〉 〈아름다운 육체〉 〈바비인형의 재국〉 〈파니 핑크〉 〈A Ma Soeur! (렛 걸)〉 등의 영화와 폐막공연 〈젠잘야, 잘 될 거야〉를 통해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다양하고 폭넓은 이야기를 해보려 했다. 고민을 나누고 상상력을 키우기 위해서, 여성제에서는 개막제 〈라퐁젤, 더 이상 참지 않다〉를 통해 보다 확실히 '너희들이 돌아보지 않고 마음껏 지껄여대는 그 일상이 얼마나 폭력적인 것인지'를 까대고 싶었다. 아울러 아직 추상적이더라도, 확신이 없더라도 나의 바람을 조심스럽게 드러내서 다 같이 공유하고 싶었다. 불편함을 느끼는 감수성, 그것이 얼마나 소



그 남성들은 개별적인 여성이 어떤사람이고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저 그들의 성적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성'이라는 것밖에는

중한 것인지, 궁극적으로 나를 좀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 너도 그제 불편했니? 너도 그걸 하고 싶었니?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 empower하고 싶었다.

조금씩 채워나가는..

아직 빈 곳이 많다. 다 채우기엔 상상력이 부족하다. 더 많이 느끼고 배우고 경험하고 나누어야 하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생각한다. 어쨌든 앞으로 적어도 500년간은 붕괴되지 않을 공고한 가부장제 사회에서 그렇게 사는 건 힘들겠지만 그만두진 않을 것이다. 나에게 feminism은 당위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언어와 표현을 찾아주었다. 그건 그들의 성찰 없는 지껄임에 맞설 힘이자 나를 찾을 수 있는 힘. 더욱 많은 공감대를 찾아가고 싶다.

by. 별

그래도 성장했다는 믿음.



결코 낮설지 않은 그녀들의 목소리 - 우리가 지금, 성폭력에 대해 들어야 하는 이야기들

B는 애인의 집에 놀러갔다가 애인에게 강간을 당했다. 너무 놀라서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눈물을 흘렸다. 성기가 쓰리고 아팠지만 병원에 갈 엄두도 나지 않았고 어떤 약을 발라야 하는지도 알 수 없었다. 임신할까봐 너무나 걱정이 되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임신은 되지 않았다. 애인에게서는 계속 미안하다는 연락이 왔고, 며칠간 생각 끝에 B는 애인과 계속 교제를 하기로 했다. 처음이라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은 사귀는 애인과 헤어지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A는 처음으로 개강파티에 참석했다. 술을 많이 마시지 않는 편인데 그날따라 술을 권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거절하기도 쉽지 않아서 많이 마시게 되었다. 그러다 문득 옆자리에 앉은 선배가 자신의 손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손을 놓으려는 순간 선배의 손이 허리로 옮겨왔다. 불쾌하고 화가 났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데다, 앞으로 계속 얼굴을 봐야 하는 사람들이라 화를 낼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짐을 챙겨 들고 집으로 왔다. 학교에 갈 때마다 그 선배를 보면 짜증이 나지만, 친한 친구들조차도 술자리에서 일어난 일인데다 시간이 흘렀으니 그냥 덮어두는 게 낫겠다고 이야기를 한다.

C는 어릴 때 열집 아저씨가 C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몸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했던 기억을 생생하게 가지고 있다. 그 때는 그게 무엇인지 잘 몰랐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기억을 떠올리면 온 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C가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 이사를 갔다. 지금이라도 찾아내서 법적 절차를 밟고 싶지만 고소가 가능할지도 잘 모르겠고, 막상 찾아내려 해도 엄두가 나질 않는다.

D는 학과 수업을 들던 교수의 일을 돕다가 우연히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다. 평소 애뜻하게 인사도 잘 하고 수업 관련 질문도 종종 하던 D를 유심히 지켜보았다는 교수는, 학술대회 참석 차 1박 2일 정도 다른 지역에 갈 텐데 같이 가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D는 그 때 다른 일정이 있어서 어렵겠다고 대답했고, 차로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교수는 차를 모텔 앞에 세우더니 잠시 쉬었다 가지 않겠냐고 했다. D는 교수에게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냐며 욕을 해주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다. 그러나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던 D는 결국 유학이나 다른 학교의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다.

대학 내 여성주의자들의 반성폭력 운동은 새터 및 OT가 시작되는 1, 2월과 함께 한 해를 열게 된



by Elee

그래서 이러한 행동도 성폭력이라는 것이냐?는 피해자 중심의 질문과 성폭력은 몇몇 파렴치한 인간들이 저지르는 범죄이고, 연약한 성폭력 피해자는 철저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왜곡된 피해자 중심주의이다.

다. 공동체 내의 성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성차별적인 문화와 성별권력, 그리고 사건 발생 시 논의의 전제가 되는 피해자 중심주의 등을 입이 아프도록 반복해서 이야기한다.

이야기를 마치고 뒤돌아서면 뛰어나오는, 또는 잠잠하다가도 막상 성폭력 사건에 대해 문제제기가 들어오면 등장하는 의도치 않았던 몇 가지 반응들. 그 중 자주 접하면서도 접할 때마다 당황스러운 두 가지 반응을 꼽자면, '그래서 이러한 행동도 성폭력이라는 것이냐?'는 피해자 중심의 질문과, '성폭력은 몇몇 파렴치한 인간들이 저지르는 범죄이고, 연약한 성폭력 피해자는 철저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왜곡된 피해자 중심주의이다. 가부장적인 사회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와 연민을 뒤섞은 온갖 부정적인 관심을 쏟아 붓는 악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반응들 역시 그 습관들 중 일부이다.

여성이 자신의 성폭력 피해를 이야기하는 순간, 상상 속의 피해자를 기준으로 한 검열이 시작된다. 가부장 사회 안에는 상상으로써의 성폭력 피해자가 존재한다. 그 상상 속의 피해자는 세상의 욕이란 욕은 다 먹어도 똥 나쁜 인간과 온 나쁘게 마주친 탓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어서, 자신의 상처를 평생 끌어



안고 누구에게 차마 말하지도 못하면서 살아간다. 결국 가부장 사회에서 용인하는 것은 '침묵하는 피해자'이다. 이는 여성의 침묵이 성폭력이 만연한 사회에 아무런 위협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침묵을 강요하는 것은, 성폭력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여성의 피해를 인정하지 않거나, 거짓 증언자로 몰아세우겠다는 일종의 위협이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판례 관련 자료나 인터넷 등을 통해 흔히 볼 수 있는 남성적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여성이 성폭력 피해를 말한다는 것 자체를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는' 시선들이 만연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성폭

력 피해여성은 너무 침착하게 대처했거나, 너무 과잉대응을 했다. 어떤 여성은 너무 잘 참아서 오히려 즐겼다는 의심을 받고, 어떤 여성은 너무 참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목적이 있다는 의심을 받는다. 성폭력 가해자의 양성과 든든한 조력에 힘쓰는 이들은, 이 딜레마를 자신들은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미국의 한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한 90년대 영화에서, 학교 안의 광장(우리 학교로 치면 중도 앞 민주광장쯤 될 것이다)에서 자신의 강간 피해를 이야기하는 여성을 보았다. 불과 몇 초 안 되는 짧은 장면이었지만, 성폭력 피해여성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Speak Out' 자리를 간접적으로나마 처음 접한 것이다. 한국의 Speak Out은 '생존자말하기대회'라는 이름으로 3회째 열리고 있다. (이번 달 26일에 열리는 3회 대회에 대한 정보는 www.sisters.or.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의 말하기대회는 말하는 아들과 듣는 아들에게 많은 힘을 주고 있지만, 아직은 아무런 제한 없이 열린 자리를 만들기 어려운 탓에 참가신청을 따로 받은 뒤 신청자에 한해 진행하고 있다.

가부장 사회 곳곳에 스민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깨뜨려나가는 것은,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이들의 목소리로 성폭력의 경험이 의미화될 때 가능하다. 성폭력 피해에 대한 말하기는, 지금껏 여성들에게 강요되었던 침묵을 깨뜨리고, 지지와 공감의 울림을 만드는 힘을 지니고 있다.

사실 성폭력 피해를 말하는 것이 운동으로 자리 잡는 사회는, 정말 아직도 갈 길이 멀고 먼 사회이다. 한탄할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할 이야기는 많기만 하다. 성폭력 피해를 의심하고, 피해자의 잘못을 찾아내려 하고, 가해자의 시각 안에 피해자를 가두려하는 시선을 뒤집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성폭력을 이야기할 때, 여성의 시각으로 성폭력 피해를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걸림돌을 만나게 되는 일인지 충분히 고려하면서 다양한 피해 경험에 귀를 기울여야한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당장은 이 글의 첫 부분에 있는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아니, 들어본 적은 있는 이야기인가. 혹시나 '정말 그랬을까?'라고 자신도 모르게 의심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피해자의 반응이 자신의 예상과 다른 것에 대해 당황하고 있지는 않은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버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가부장적 편견, 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이유, 성폭력 사건의 고소율이 6% 정도로 추정되는 이유, 성폭력 피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직도 운동이 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 **by. 들레**



이주 여성 노동자를 만나다.



이주여성노동자 라디카(가명)



"근로 기준법을 준수하라" "노동권을 보장하라." "민주노조 사수하자." "19년째 일한 여성 노동자의 임금이 아직도 69만원 밖에 되지 않는 상황..." "밥을 먹을 시간조차 주지 않고 옷을 갈아입을 장소도 없어..." 2005년 11월 13일 노동자 대회에서 본 이러한 문구들은 사실 이 시대에서 얼마나 낡은 문구인가. 계급 운동을 하면서 여러 환경 속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할 때면 정말 70년대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 강도의 강화와 불안정 노동 속에서 고통 받고 있고, 현장 투쟁이 봉기되면서 그나마의 힘찬 싸움도 일주일 넘기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보통이 된 지금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통의 정도를 객관화하여 수위를 재는 것이 옳지 못하다 할지라도, 나는 열악함에 대해 생각할 때 유독 이주 노동자를 떠올리게 된다. 불법 체류자, 고용 허가제와 산업 연수생 제도¹⁾의 폐해, 단속 추방, 포승줄, 전기 충격봉, 자살, 위원장 구속.....또 그 중에서도 이주 여성²⁾ 노동자들의 문제는 어떤가. 여성은 동일한 노동을 하고도 남성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으며 작업 현장의 관리자들로 부터 일상적인 성폭력에 시달리고 있고, 남성에 비해 강제 추방, 단속 등 공권력의 폭력에 더욱 손쉬운 공격 대상이 된다. 또한 국제 매매혼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이주 여성, EB비자로 들어와 대체로 성매매로 유입되는 이주 여성의 문제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이 힘겹다. 또한 그녀들이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임금 체불을 당하고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결코 정식적인 처리 과정을 밟을 수도 없고 스스로를 보호하고 싸워나갈 그녀들의 조직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

1) 해외에서 수송과 이주 노동자 유입은 자본이 더 많은 양자를 착취할 수 있는 제국주의적 정책이다. 자본적으로 이주 노동은 송출국과 유입국 사이의 노동력 재생산 비용이 현재와 차이가 나면서 발생한다. 이주 노동자들은 제국주의를 고착화하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과 업체에 고용되어 있다. 산업 연수생 제도는 교육과 연수로 거의 치환된 임금에 강도 높은 노동을 통해서, 고용 허가제는 산업별 이종의 자유를 제한하고 직업감 형성을 고수함으로써 이주 노동자를 묶어두고 착취한다. 따라서 이주 노동자들은 합법 체류기간 동안 임금 체불으로 전 날과 한국에서의 생활이 때문에 손익 없이 단기간 내에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자강하여 불법 체류자로 일하게 된다.

2) 늘 이주 노동자의 상황을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 지면을 통해 읽고 싶은 이야기는 그녀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는가를 추구할 것임은 분명하다. 나는 국제 매매혼으로 한국에 온 이주 여성이나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는 이주 여성을 만나본 적이 없고, 그저 텍스트를 통해서 그녀들의 삶을 접해왔을 뿐이다. 그것은 일으로 내가 재워나가기 할 부분이겠지만, 이 글에서 나의 현재 고민을 남기려는 이야기들을 함께 서술해 붙이는 것 보다 내가 만나보았던 여성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그녀들과 함께 앞으로 해 나갈 것들을 약속하는 보람 없는 이야기들을 쓰는 것이 더 진솔하리라.



그러나 오늘은 이주 여성 노동자들의 힘겨운 환경보다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다. 솔직히, 그리고 감히 이야기하자면, 내가 본 이주 여성 노동자들은 우리가 항상 선전하는 것과 같은 절대적인 빈곤과 고통에 놓여있는 것만은 아니었다. 이주 노조 내부에 여성 노동자는 전체 300명의 조합원 중 5명밖에 되지 않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성 노동자들은 멋진 모습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싸우는 분들이었다.

라디카, 소하나, 데븐, 리나. 내가 이야기 하고 싶은 멋진 언니들이다. 라디카 동지는 네팔에서 온 이주 노동자로 동대문 지역에서 방직일을 하고 있다. 라디카 동지는 2003년 이주 노동자 명동 성당 농성 투쟁 때부터 열심히 싸웠고 지금도 이주 노조 안에서 누구보다도 여성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노력하는 분이다. 사실 농성 투쟁은 현

장에서의 조직과 투쟁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주 노동자보다 연대단위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남성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 속에서 3명밖에 되지 않는 여성 노동자들은 참자는 공간조차 분리되어있지 않고, 주요 회의에도 배제되어 있었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라디카 동지로부터 시작되었다. 소하나 동지가 여기에 함께 했는데, 소하나 동지는 명동 성당 농성 때 받은 상처로 농성 중에 노조를 떠났다. 소하나 동지와는 제 8회 여성제 <라온젤, 성을 탈출하다>에서 간담회 '이주 여성의 노동과 국제 매매혼'을 준비하면서 인연이 닿게 되었다. 간담회를 준비하면서 이주 노조 내부의 가부장성에 대한 소하나 동지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다.

"회의 자리에서는 나를 동지라고 부르지만 내 의견은 존중되지 않았고 회의를 벗어나면 나를 그저 여자로 대했어. 동지라고도 부르지 않고 스킨십도 많아지고, 그늘고 내가 남성 동지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것 가지고 투쟁은 제대로 안하고 연애한다고 막 소문을 만들었어. 끝까지 싸우지 않은 건 내 잘못이지만 난 그때 마음을 너무 많이 다쳤어."

"투쟁하고 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아무 차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돼. 여자는 다르게 살았던 말이야. 우린 셋밖에 안 되는데 더 많이 배려하고 도와줘야하는데."

자금은 인도네시아로 돌아간 소하나 동지는 노조 활동을 그만둔 이후에도 피자대 연대에서 대안 생리대를 만드는 작업을 계속하면서 꾸준히 여성주의에 관심을 가지고 일했고, 라디카 동지는 동대문에서 무서운 여성주의자 누나로 통한다. 그녀는 노동자 대회에서는 동대문 지역에서 함께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행진 대열에 섰다.

최근에 만난 데븐과 리나는 미국에서 온 영어 강사다. 학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영어 강사 노동자들은 생산적 노동자들보다 노동 환경과 임금 수준이 높



photo by 바리

"투쟁하고 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아무 차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돼. 여자는 다르게 살았던 말이야. 우린 셋밖에 안 되는데 더 많이 배려하고 도와줘야하는데"



photo by 바리

은 편인대도 불구하고, 두분은 자신들도 엄연한 이주 노동자이고, 게다가 여성이기 때문에 더욱 'rally' 와 'union' 이 필요하다고 힘차게 이야기 했다. 특히 데븐 동지는 오래도록 이주 노조 중앙에서 함께 하셨는데, 스킨십을 포함하여 여성과 남성의 관계 맺음은 문화차이로 이야기하기 이전에 상호 합의가 필요하고 그것은 여성주의를 통해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리나 동지는 모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시는데, 한국에 와서 마르크스와 여성주의에 대해 공부하는 학생들이 너무 없어서 정말 아쉬웠으며 이주노조에서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도 함께 해결해가며 많이 공부를 하고 싶다고 했다.

매체에서 소개되는 이주 노동자들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고, '사장님 나빠요'의 불평카는 이주 노동자를 바보로 취급하기까지 한다. 사실 이주 노동자, 특히 이주 여성 노동자의 삶은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녀들의 삶이 열악해서 그녀들의 정신 역시 나약하지 않다. 위축되기 쉬운 환경 속에서도 여성 노동자들은 늘 당당하게 여성 노동자를 위한 여성주의적 요구를 냈고 주위 남성 노동자들을 여성주의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늘 노력하였다. 또한 그

녀들과 연대해야 하는 이유가 그녀들이 열악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내가 만난 이주 여성 노동자들은 이주 노동자를 착취하는 남한의 제국주의 정책, 그리고 노동자로서 마주치는 자본주의의 모순, 그 속에서의 가부장주의를 날카롭게 바라보고 싸우려는, 큰 힘을 가진 운동의 주체였다. 우리가 서로의 문제의식에 동의하고 함께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그녀의, 그녀들은 우리의 소중한 동지이다.

이주 여성 동지들을 보면서 나 역시 새로운 연대의 지점을 찾았다. 같이 활동하는 친구들과 여성주의에 대한 고민을 심화하여 이주 여성 노동자 학생 연대팀을 구상하게 된 것이다. 보다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 조합을 통해서 이주 노동자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스스로의 투쟁을 통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성 노동자들을 이주노조로 조직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이주 노조의 가부장성을 깨나가는 가운데 가능할 것이다. 노동자 대회 전야제에서 라디카, 데븐, 리나 동지를 만났고 경기 북부 지역에서 열심히 싸우시는 짜히 동지와도 연락이 닿았다. 노학연대팀과 여성 동지들이 모여 여성주의 교양 사업과 소식지의 여성주의 칼럼을 함께 준비하고 여성 노동자들을 만나는 일을 같이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기적인 모임을 약속했다. 라디카 동지가 네팔어를 맡고, 데븐, 리나 동지가 영어를 맡고 곧 방글라데시 여성 노동자를 만나면 방글라데시어까지, 우리들의 여성주의가 다양한 언어를 타고 43만 이주 노동자 모두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by_ 나날이 새로 태어나는 광대 초성

myunga8@naver.com

(이주 여성 노동자들과 만나고 함께 일하고 싶은 분들 연락 주세요.)

사진출처: 이주여성 '다문' 투쟁정형 (2005년 7월 25일 부영기차 여성주의자일 일다 www.idaro.com)



연대활동. 함께 나누고 함께 외치는 즐거움

학내에서 여성운동을 하다보면 가장 반가운 일 중 하나가 다른 학교나 단체에서 여성주의 운동을 하는 친구들과의 만남이다. 서로 비슷한 환경, 그러나 다른 공간에서 활동하던 여성주의자들을 만나게 되면, 여성주의자들이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을 얼마나 아끼는지, 그리고 여성주의가 가진 섬세한 지점을 얼마나 열심히 이야기하고 합의하려고 하는지 잘 알 수 있다. 여기서는 2005년 한 해 동안 연세대 총여학생회의 이름으로 참여한 연대활동 중 몇 가지의 경험을 풀어내보려고 한다.

달빛아래 여성들, 밤길을 되찾다

2005년 7월 신촌에서 작년에 이은 두 번째 달빛시위가 열렸다. 신촌 놀이터에서 홍대 근처 걷고 싶은 거리까지, 피켓을 든 여성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달빛시위는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주최하고, 몇몇 여성단체와 대학 여성주의 단체들이 모여 준비한 행사였다. 여성들에게 언제나 위험한 것, 멀리 해야 할 것으로 규정되던 밤길을 여성들 스스로의 목소리로 되찾는 시위. 여성들에게 밤길을 다니는 것을 가장 크게 가로막는 것은 성폭력이지만, 여성들이 그 앞에서 무력한 존재는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제 그 폭력의 고리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을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진을 통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렇게 여성들의 밤길되찾기에 대한 말할 거리를 논의하고,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과정은 어렵고도 즐거운 과정이었다. 여성들이 받고 있는 억압과 차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여성주의자들은 항상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설명할 언어를 찾는다. 억압과 차별을 뒷받침하는 가부장 사회를 향해 시원스럽게 소리쳐 주고 싶은 욕망과, 그 안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자신을 돌아보고 싶은 심정. 성폭력 가해자를 혼내주는 용기 있는 여성의 이야기와, 그렇게 하지 않았던 여성들에게도 힘을 주는 이야기. 더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억압에 저항하는 이야기들이 또 다른 억압을 뒷받침하지 않도록 우리는 많이 이야기하고, 많이 생각했다.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지만, 그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이 행여나 꼭 해야 하는 이야기를 지워버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열심히 생각하고 열심히 이야기했기에 더욱 즐거웠



2회 달빛시위 포스터

교수성폭력 근절을 위한 여성주의자 연대회의

여성주의자들은 이런 것 같다 라는 편견들에 종종 코웃음을 치는 나이지만, 여성주의자들과 즐거운 만남을 갖다보면 나도 모르게 비슷한 명제를 떠올리곤 한다.

고, 함께 걷고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며 밤길 되찾기를 외칠 여성들이 있기에 행복했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여름마다 찾아올 이 행복한 시위에서 더 많은 여성들을 만날 수 있기를.

교수성폭력근절을 위한 여성주의자연대회의

교수성폭력근절을 위한 여성주의자연대회의(이하 교성절연)는 2003년 가을 대학 여성운동단위들이 모여 꾸린 연대이다. 총여학생회를 시작하면서 교성절연에 처음으로 참여했던 날의 기억은 아직도 또렷이 남는다. 처음 만난 어색함과, 막 활동을 시작하면서의 두근거림으로 조용조용한 대화가 이어졌고, 간단한 인사와 각자 몸담고 있는 학교에 대한 상황을 수다로 풀어내는 날이었지만, 집에 돌아가는 길에는 모두들 기쁘게 웃으며 헤어졌었다. 그리고 그 후로 지금까지 교성절연은 나에게 그런 의미로 자리 잡고 있다. 교성절연은 작년 말 교수성폭력사건 처리과정에 관련된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고, 올 여름에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의전화 등의 여성단체와 함께 강의 중 언어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청회

를 열었다. 메이데이와 달빛시위에 다같이 참여해서 함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아직 학생들이기 때문에 활동 경험이 그다지 풍부하지 않고 각자 속한 단위의 활동을 꾸리기에다 벽차서, 함께 같은 일을 하기가 쉽지 않고 때론 부딪히기도 했었다. 그래도 교성절연은 같은 상황에 공감하고 다른 상황은 이해하는, 그래서 서로를 성장하게 하는 친구들의 소중한 모임이다. 꼭 교수성폭력과 관련된 일이 아니더라도 여성주의적 목소리에 함께 지지를 보내고 함께 할 수 있는 바를 모색하는 사람들이 고정된 모임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학내에서 많지 않은 인원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여성주의자들에게 큰 힘이 아닐 수 없다.

'여성주의자들은 이런 것 같다' 라는 편견들에 종종 코웃음을 치는 나이지만, 여성주의자들과 즐거운 만남을 갖다보면 나도 모르게 비슷한 명제를 떠올리곤 한다. 여성주의자들은 자신의 색깔을 분명하고 즐겁게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아마도 여성에게 뒤로 물러날 것을 강요하는 가부장적 사회를 잘 알고, 이에 저항하는 내공을 스스로 쌓아나갔기 때문이 아닐까. 총여학생회는 물론이고 연니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러 단체에서는 1년 내내 함께 할 사람들을 찾는 행사들이 열린다. 함께 목소리를 내는 여성주의자들의 Fenery를 만나고 싶다면 부지런히 찾고, 뛰고, 문을 두드리보는 게 어떨지. **by. 물레**



13~16대 총여학생회를 만나다



13대 총여학생회 <별 수 있/다>

— 술래, 윤 인터뷰

13대 총여학생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행사로 꼽는 것은 '성에 관한 솔직담백한 오피니언' (Body Basics)였다. 호신술과 피임, 순결이테올로지 등에 대한 강연과 함께 학관 앞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테스트, 월경주기팔찌 만들기, 피임도구 전시, 콘돔 실습 등의 행사가 있었다. 특히 학관 앞 성교육 행사는 언론에서도 매우 집중적으로 보도되고 학내에서도 큰 이슈가 되었다.

13대 총여학생회가 활동하던 2001년은 학내 여성자치단위들과 함께 여성제를 꾸릴 수 있을 정도로 최근에 비해 많은 여성주의자들이 학내 활동에 함께 했던 시기였다.

지난 여름방학 기간 중, 총여학생회에서는 여성주의 활동을 했던 선배들과 활동을 하고 있는 후배들의 조출한 만남을 준비했다. 여성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이들이 함께 갖게 되는 고민들 - 여성주의자로 스스로를 정체화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 나의 일상에서 스며들어 있는 가부장성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질 때의 혼란스러움, 몸으로 느껴온 문제이지만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 등등 - 을 먼저 활동을 시작했던 선배들과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다. 어떤 대답이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질문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위해서, 그래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좀 더 즐겁게,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기 위해 준비한 자리였다. '연세 여성주의자 워크숍'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던 이 날의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13대부터 16대까지 총여학생회 활동을 했던 몇몇 선배들과의 인터뷰가 있었고, 다음의 글은 그 중 몇몇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2001년~2004년 여성주의자들의 활동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는 이 인터뷰로 이번 호의 기획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bodybasics 자료집, 2001년 13대 총여학생회

술래: 우리가 왜 성교육 행사를 했다면, 그 전에는 성폭력 얘기만 했기 때문에, 성폭력 얘기가 여성이 피해자화되는 게 있잖아, 우리가 그걸 의도한 건 아니지만

윤: 그 전 해가 워낙 학칙제정을 이슈로 했거든, 사실 97년, 98년 이후로 성폭력 얘기가 주된 얘긴 했어

술래: 우리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있었고, 스스로도 좀 그랬고, 행사하면서 성적 존재임을 스스로 확인하기도 하고, 준비하면서 교육도 받으러 가고 그랬어

윤: 민우회에서 하던 프로그램을 사실 많이 갖고 와서 했는데, 반응도 괜찮았던 것 같아, 그 전에 아와에서 한 행사가 별로 없었거든, 여성제가 있긴 했지만 성교육 행사를 학관 앞에서 하는 건 또 다르니까



광년의 이진년 외기, 자치규약 자료집, 2001년 Beyond

14대 총여학생회 <나를 움직이는 에너지-기분 좋은 충돌>

— 이갈 인터뷰

이갈: 제일 이슈가 됐던 거 글썽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일단은 그 전에 화장실 신문물 하다가 우리가 매체를 처음 만들자고 해서 발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슈가 됐다가보다는 지금까지 매체를 만들고 있으니까 우리한테는 중요한 일 중 하나였고, 그 다음에 밥꽃양 상영했던 거? 반응이 많았던 거는 그거야, 그 때 2회 다 매진됐었어

14대 총여학생회에서 처음으로 잡지 형태의 매체를 발간하기 시작했고, 같은 형태의 매체가 17대 총여학생회까지 이어졌다. 학내에서 여성주의 매체를 찾아보기 어려운 요즘, 총여학생회 매체는 많은 고정독자들을 확보하고 있다. 밥꽃양은 현대자동차 노조 투쟁 안에서 여성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로, 각당현에서 상영회를 열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갈: 투입술은 사실 그 전에 원래 학내에서 여성운동 하던 사람들이 만든 거였어, 98년도에 만들 때부터 이미 총여도 하고 다른 모임도 만들었던 선배들이 매체로 이런 걸 해야겠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서 만든 거야, 그래서 선배들한테도 많이 배웠고 친구들도 거기서 많이 만났고, () 책을 만드는 경험이라는 게 같이 몇 개월씩 기획을 하고 글쓰고, 어떤 하나의 이슈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깊이있게 생각하고 논쟁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자주 있겠어



투입술 6호, 2002년 투입술 편집위원회



두입술은 학내 여성주의 자치언론이었고, 6호까지 발간된 뒤 중단되었다. 2002년 정도까지 학내에는 페미니리, 모반, 비온드 등의 여성자치단위가 존재했으나 현재는 대부분 해소되고, 다시 새로운 단위들이 꾸려지고 있다.



15대 총여학생회 〈일상의 흐름을 바꾸는 여성주의 - 일파만파〉

· 독, 여랑 인터뷰

여랑: 큰 사업 말고 일상사업이 더 기억에 남아. 처음에 매체를 만들면서 매체에서 특집이랑 기획하고, 특집이랑 맞는 행사를 매달 하기로 했었어. 처음 3월에 사이버페이스, 4월에 전쟁, 이런 식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작은 사업들을 잡자랑 연계해서 한 거야. 그러구, 우린 (매체들) 여섯 번을 냈다구. 여섯 번을 낸 건 우리 밖에 없어 ^^ (...) 여성제 때 엄청난 자보전 다 손으로 그림 그리고 색칠하고... 성폭력 자보 열 개하고 아내폭력 자보 열 개쯤 중도 안에 꼭 걸었어.

독: 헬레같이 날아났다고 (학생처에서) 뭐라고 했잖아.

여랑: 응, 막 (바람에) 날리고, 나름 문화제라고 출력 안 하고 다 손으로 그렸어.

15대 총여학생회는 매달 토론회, 공연, 조형물 설치 등의 행사들로 이슈파이팅을 해나갔다. 또한 5월에 첫 성폭력 문화제를 열기도 했다.

적은 인원으로 일상사업을 꾸준히 해나가면서 큰 문화제들을 치러낸 15대 총여학생회는,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복지사업부분에서 이슈파이팅을 더 하지 못했던 것을 아쉬워했다.



제1회 성폭력 문화제 〈여성, 욕망, 말하다〉 자료집, 2003년 15대 총여학생회

독: (...) 13, 14대에 했던 성교육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다른 이야기를 하자고 해서 성폭력이랑 연결되기도 했고.

여랑: (성교육 행사가) 2년 정도 진행되는 걸 봐서 우리는 다른 걸 하는 게 더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했어. 성교육 행사는 민우회에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콘돔은 이렇게 사용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라서.

독: 좀 더 어떤 정치적인 것을 담아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우리가 굳이 (성교육 같은) 그런 서비스를 해 줘야 되나 해서.

여랑: 그래서 우리가 아쉬운 게 복지가 넓은 의미로 많은 애길 할 수 있었는데 굉장히 협소한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비상벨 설치, 생리대 자판기, 그 정도를 학교에서 마련해달라 정도였어.

독: 생리대자판기나 그 정도 수준에서... 흡연문제나, 그 때 한참 여학생 휴게실 흡연하는 것 때문에 말이 많았어.

여랑: 그것에 대해 더 이슈파이팅 할 수 있었는데.



16대 총여학생회 〈박제된 선택을 거부하다 - 행복한 여성주의〉

· 열 인터뷰

16대 총여학생회의 가장 큰 사업 중 하나로 꼽는 것은 반성폭력 학칙개정이다. 2004년 교육부령에서 반성폭력학칙의 학생측 개정안을 반영한 개정을 이루어낸 것이다. 이는 몇 년 동안 총여학생회에서 반성폭력 학칙에 대한 꾸준한 문제제기를 해온 노력에 덧붙여, 16대 총여학생회가 서명운동과 자보, 화장실 신문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반성폭력 학칙이 가진 문제들의 심각성과 개정의 필요성을 부지런히 알려나간 결과였다.



열: 그 즈음까지 다른 학교 여성운동 단위들이랑 만나서도 반성폭력 학칙개정이 필요하다고 같이 논의를 하는 작업들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2003년에도 15대 총여에서 한판각 학교 여성주의자들이 일 년에 한번씩 모여서 꾸리던 워크숍에 참여하면서 각 학교 학칙들을 다 검토하고 정말 이상한 학칙이 되게 많다는 것과 실제로 학칙내용엔 있지만 실제 사건 해결 과정이라든가 학교 안에서 구체적으로 적용이 될 때 얼마나 하점이 많을 수 있고 허술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모으고 같이 나누는 얘기를 했었어. 연대 안에서도 이제까지 많은 사건들을 반성폭력 학칙을 적용하는 성폭력 대책위원회에서 해결을 하거나 (교내 성폭력)상담실을 통해서 해결을 했는데 지금 학칙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논의들을 모았었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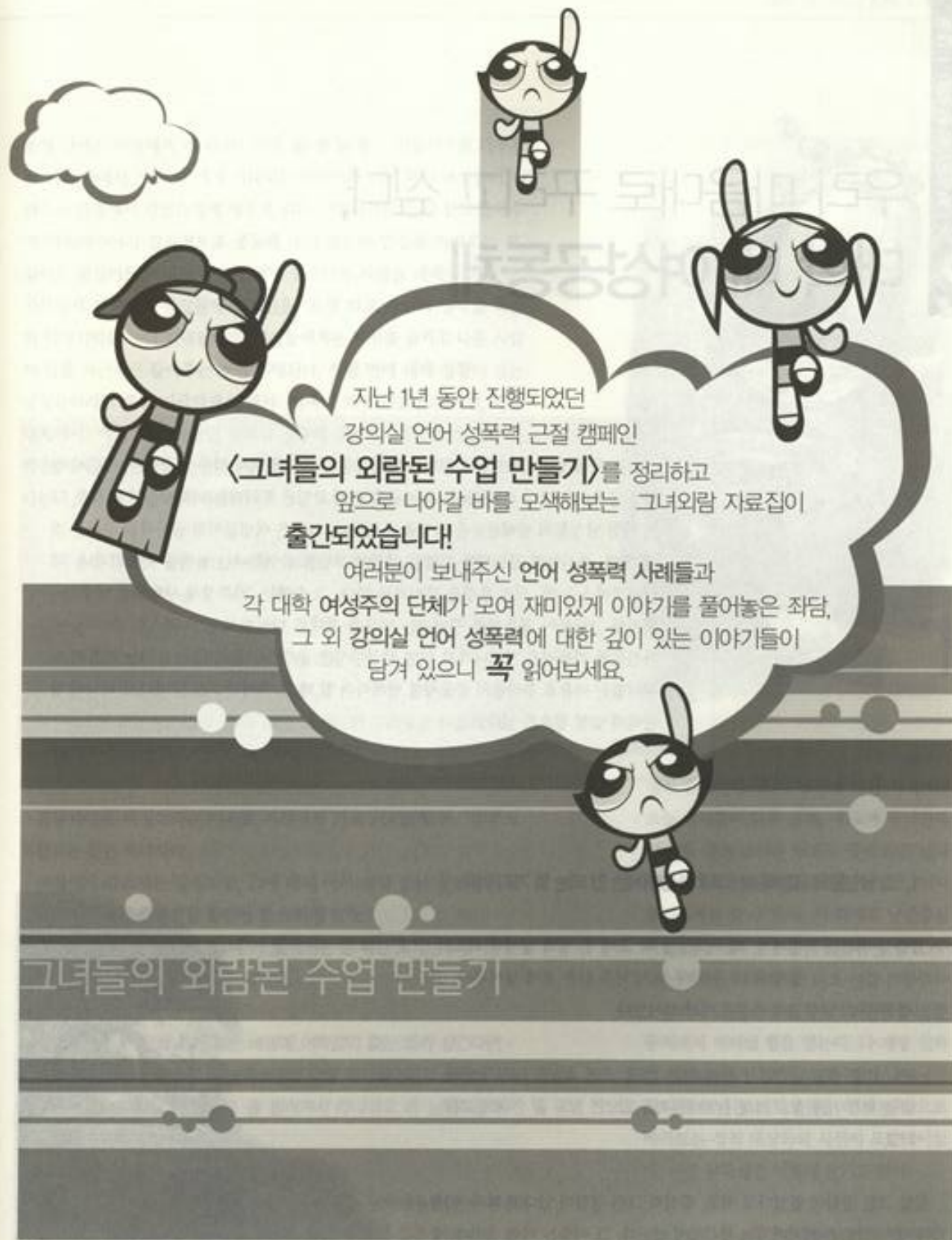


그걸 받아서 정리를 하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시작하고는 사실.. 뭐라고 해야 하나. 학칙 자체를 고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는데, 개정 한 다음에 그걸 실제로 집행할 성폭력 대책위원회에 있는 교수들 인식에 따라서 너무 고무줄처럼 왔다갔다할 수 있었어요. 버젓이 있는 학칙이 시행이 안 되거나, 대책위(성폭력 대책위원회) 교수들이 피해자의 입장을 전혀 이해 못 하고 2차 가해에 해당하는 말을 하거나.. 학칙이 아무리 훌륭해도 실제 사건 처리는 학칙을 집행하는 대책위 상황에 많이 달려있는 거라서 대책위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때 했던 게 대책위에 여교수 비율을 어느 정도 이상으로 한다. 그리고 학생 추천을 통해서 대책위 교수 선임을 한다. 이런 식으로 보충을 하고 그래서 김현미 선생님처럼 여성학 관련 연구를 하셨거나, 성폭력이 성별권력관계의 문제에서 발생한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가진 여성교수님이 대책위에 들어오실 수 있게 됐고 그러면서 많이 변했죠.

하면서 항상 힘들었던 것 중 하나는 관성적이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거였어요. 연대 안에 여성주의 운동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고, 과반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 반성 폭력 운동, 성매매, 성소수자 인권 등의 주제들이 몇 년간 반복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왔는데, 이 이야기들을 어떻게 관성적이지 않게, 지금 학교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녹여내면서 계속 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조바심이 났던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좀 더 깊은 고민을 담아야 하는데 참여학생화 일정을 소화하는 것이 빠져서 정작 운동에 대한 고민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은 다른 이야기들을 더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조바심들(;) 근데 그럴 때 중요한 게, 그럴 때마다 돌파구라면 돌파구가 되었던 건 공부나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 선배들 만나서 얘길 한다든지, 외부 단체랑 연대를 해서 새로운 고민을 얻는다던가, 그런 거였어요.



여성주의로 일상을 짚어내는 이야기들을, 필요한 상황에서 놓치지 않고 풀어내는 것은 여성주의자들에게 끊임없이 계속되는 과제이기도 하다. 특히 참여학생회는 여성주의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지금까지 해 온 운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노력을 이어나가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일상의 정치로 여성에게 힘을 주는 이야기와 여성을 새롭게 의미화하는 이야기로 풀어낼 수 있는 그 과제는, 오히려 즐거운 것이 아닐까. **한나**



지난 1년 동안 진행되었던
강의실 언어 성폭력 근절 캠페인
〈그녀들의 외람된 수업 만들기〉를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바를 모색해보는 그녀외람 자료집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언어 성폭력 사례들과
각 대학 여성주의 단체가 모여 재미있게 이야기를 풀어놓은 좌담,
그 외 강의실 언어 성폭력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으니 꼭 읽어보세요.

그녀들의 외람된 수업 만들기

우리 마음대로 꾸리고 싶다, 대학 내 여성공동체

지금 학내에서 여학생들의 모임은 남학생들의 그것에 비해 아주 협소하다. 꾸준히 경험을 공유하고 일상 속의 empowering을 위해 모임을 꾸리려는 여학생들이 많지만, 그에 대한 남성들의 방해공작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들은 여학생끼리 공동체를 꾸리는 것에 대해, 자신들의 공동체에 편입할 여성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불만을 터뜨리거나 '왜 너네끼리 노는데' 식의 무정을 부리기도 한다. 그 속에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들의 위치와 그녀들이 공동체를 꾸리려는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무식함'과 더불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나가기 위한 무시무시한 음모(?)가 들어있다. 우리는 그들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우리들의 공동체를 방해하려 할 때 그 시커먼 의도를 제대로 파악해 당당하게 맞설 필요가 있다.

1. 그 남성들의 공동체에 그녀가 없어서는 안 되는 몇 가지 이유

OT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왜 여학생을 꼭 조에 한 명씩 넣어야 하느냐, 여학생이 없는 조가 생기더라도 여학생 두 명씩은 같은 조에 넣어주자, 고했을 때 무릇 그 남성들의 반응은 이런 식이었다.

- 아니 이걸 정말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건데, 조에 확실히 여자가 있어야 분위기가 좀 살고 그래 남자들이랑 있으면 일도 잘 안하고 그런다고

정말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치고, 확실히 그런 경향이 있다고 치자. 이유가 뭔데? - 그들은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런 것이다. 공



공동체 안에서 여성에게 기대되는 역할, 감정노동 - 전통적으로 가부장적 가족 내에서 '어머니'에게 기대되는 역할이자 이에 따라 여성들이 자라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어떤 이야기든지 참고 들어주며 다독여주어서 결과적으로 공동체 내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는 것, 싫어도 힘들어도 티내지 말고 언제나 웃으면서 사람을 대해야 하는 것,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들에게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의 생각을 확실히 이야기하는 것이 기대된다면, 여성들에게는 자신을 숨기고 다른 사람의 말을 차근차근 들어주는 것이 기대된다. 이런 면에 대해 성찰이 없는 남성들이라면 웅당 지금까지 집에서 '어머니'가 그랬었던 것처럼, 대중매체에서 '여성'이 그랬었던 것처럼 공동체 내에서 '여학생'이 그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새내기 맞이 행사 중 이런저런 사정으로 너무나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답시고 누군가가 한 말은 이런 것이었다.

- 난 빈에서 엄마 같은 역할이잖아, 아빠와 엄마에게 기대되는 건 다른 거야 그러려니 하고 힘내

동아리 회장으로 뽑힌 여자친구는 이런 말을 들었다.

- 난 이제 우리 동아리의 '엄마'잖아 그러니까 우리들을 보살펴 줘야지

공동체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부장적 가족상(家族像)의 '엄마'로 치환되는 일은 허다하다.

여성에게 강요되는 감정노동, 그에 대해 아무 성찰 없는 공동체는 당연히 여학생들에게 불편한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남성들의 공동체'에 '그녀'가 없어서는 안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은 말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 여학생을 두 명씩 조에 넣는 바람에 여학생이 없는 조가 생긴다면, 그건 여학생이 없는 조의 남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생각해
- 여자애들은 너무 뭉쳐 다녀 좀 떨어져서 다니라고 해 남자들이랑도 고도 친해져야지

여학생들이 뭉쳐 다니는 것이 눈에 띄는 이유는 남학생들은 굳이 뭉치지 않아도 뭉쳐져 있기 때문이다. 여학생들끼리 하고 싶은 이야기도 분



명히 존재한다. 혹시 생리대 가진 거 있냐? 오늘 생리통이 너무 심해, 저 오후가 나한테 치근대, 같은 조라는 이유로 옆에 앉은 남자 동기에게 이런 얘기를 하긴 힘들지만, 여자 동기에게는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남성중심적인 공동체에서 여학생들끼리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은 아주 많다.

그리고 그런 공감대를 통해 여학생들은 공동체에서 버텨낼 힘을 얻는다. 나 재량 천하게 지내야겠다, 같은 조 해야겠다, 는 남성들의 주장에는 여학생들을 연대 대상으로 바라보는 성취 대상화의 시선이 포함되어있다. 어떤 남학생은 이렇게 묻기도 한다.

- 그럼 새내기 여자애랑 연애하면 안

특집 | 대학 내 여성공동체

된다는 거야? (뭐 성찰의 출발점이라고
만는다)

문제는 연애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성적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성'이라는 것에만 강조점을 두는 것이다. 재는 누가 벌써 찍었다더라, 이 애는 내가 찍었으니깐 넘보지 마, 재는 확실히 데리고 다니기 이른데? 재는 다리가 어떻게 허리는 어떻게 가슴은 어떻게(나도 남자애들이 설마 이런 얘기를 하진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순진한 시절이 있었다). 한 마디로 저 여자애가 FUCKABLE한지 아닌지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남성들은 자신의 연애 대상을 한 명이라도 더 만들기 위해 죽어라고 같은 조 동기로 선배로 들어가고 자 노력하는 것이며 '그 남성들의 공동체'에 여성을 편입시키는 것이다.

남자애들끼리 할 수 있는 건 그냥 남자애들끼리 하면 안돼? 안된다. 가장 확연한 예는 남성 운동동아리의 여성 매니저이다.

- 아직 재네 동아리는 여자 매니저도 없다
더라

- 아 재네는 여자 매니저가 다섯 명이나 된대

- 근대 예네 동아리 매니저들이 훨씬 예쁘

더라

사실 매니저는 일이 아주 많은 자리이지만 대부분 동아리의 남성들이 여성 매니저를 대하는 태도는 '동아리 한 구석에 모셔 다 놓은 꽃'에 지나지 않는다. 어디가 꽃이 더 많은지, 더 예쁜지, 어느 동아리의 매니저가 분석력이 뛰어나고 운동에 대해 잘 알더라,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결국 동아리를 '위해' 여성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건 운동 동아리로서 동

아리 활동의 효율을 높여주고 등등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시적인 동아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다.

2 그 남성들이 그녀들의 공동체를 눈 뜨고 보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

- 왜 굳이 너네끼리 뭉치는데? 우리는 기회를 담은 적 없어 운동동아리라고 해도 여자도 뽑잖아 우리가 운동을 못하게 한 게 아니라 애들이 매니저 할게요' 라고 하길래 '그래' 라고 한 것뿐이야

그들이 쉽게 지적여대는 말이다. 말이 좋다. 남성들이 '굳이' 뭉치지 않는 이유는 굳이 그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뭉치기 때문이다. 술자리, 축구, 농구 등 남성들끼리 집단적으로 토크를 할 수 있는 문화가 존재하니까, 하지만 여성들은 그렇지 않다. 당장 학교 안에서 여성들이 운동할 수 있는 여지는 좁다. 샤워실도 없고 치마를 입고 운동했을 때 다리로 쏟아질 그 남성들의 불쾌한 시선을 굳이 감당하는 것도 힘들다. 그리고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운동하는 것을 격려 받거나 그들만큼 많이 하며 크지도 않았건만 남성들은 가뿐하게 여성들이 운동하는 걸 보며 비웃는다, 못하네! 그건 운동에 있어서 여성들의 성취를 떨어뜨리는 언행이다. 일단 base가 다르기 때문에 여성들보고 남성들의 운동 동아리에 들어와서 같이 운동하자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앞서 말했듯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만큼 운동에 있어서 접근성이 크게 자라지 않았다. 하지만 대다수의 운동동아리는 이런 면에 대비되어 있지 않다(하물며 학교 수업도 그런 마당에). 게다가 축구나 농구처럼 몸싸움이 격렬한 스포츠인 경우 여성이 남성들과 함께 경기하기는 힘들다. 결국 한 마디로 그 남성들의 주장은 '우리는 굳이 모이려고 하지 않는데 너네는 왜 굳이 모이려고 하나, 왜뭉치냐'는 것인데, 여학생들이 '굳이' 모여야만 하는 지형에 대해서는 살피지 않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역시 너희들의 상상력은 딱 그만큼이구나.

남성중심적인 분위기가 팽배한 학내에서 여학생들이 모이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진다. 서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서 여학생들의 목소리가 모이기 시작하고 그 힘이 발휘될 수 있다.



- 어제 친구가 '파먹었다'는 표현을 쓰는 거 있지
- 말도 마 우리 반 선배는 스타 컸다고 '강간당했다'고 하더라
- 내 친구는 영화 얘기하다 섹스신 이야기가 나오니까 날 보더니 '내규라고 신고하지 그래?' 라고 하는 거 있지 웃기지도 않아서
- 우리 동아리 애들은 어떤 애 붙들고 왜 그렇게 남자답지 못하냐고 매일 구박해 나보고는 좀 여성스럽게 하고 다니라는 거 있지
- 어제는 술자리에서 나 빼고 다 남자애들이었는데 갑자기 성구매했던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디는 알리고 그런 얘기들

'예민한' 걸로 치부되었던 감수성들이 모여 공동체의 가부장성을 해체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그동안 공동체 내에서 남성들이 누려왔던 기독관을 해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성들은 여성들의 공동체를 경계하며 방해한다. 무조건 여학생들이 모인다면(feminism과 상관없든 없든)

- 너 왜 여자후배들 불러 모아서 페미사상
주입시키고 그래

라고 하는 데서 그런 생각은 잘 드러난다. 설령 feminism과 상관이 있다고 해도 그 남성들이 관여할 바 아니다. 공동체라는 건 하고 싶은 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그걸 하는 것이 아닌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옳지 못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타당한 이유를 대지도 못하면서 하지 말라고 들이대는 건 우스운 일이다. 문제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그 들이댐이 통한다는 것. 그래서 현재 학내에서 수많은 남성들의 방해공작과 사이버테러 등을 이겨내고 곳곳이 여성 공동체를 꾸려나가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다.

3 하지만 우리 마음대로 꾸리고 싶다면

꾸려야한다. 어차피 그 남성들의 방해공작은 가부장제 사회가 완전히 해체될 그 순간까지 지속될 것이다. 결국 적당히 끌어내고 가뿐히 무시하고 우리의 생각과 주장을 펼쳐내며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편협하고 왜곡된, 무식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말해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를 방해하지 않을 순간을 기다리다 우리가 먼저 숨통이 막혀 죽어 버릴 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므로 학내에서 여성 공동체를 꾸리는 사람들, 공동체를 꾸리지 않더라도 여자친구들과 소소한 일상을 나누며 가부장적 사회에 균열을 내는 모든 여성들, 파이팅이다.

by_ etoile

"연대의 시대가 올 걸세"
죽어도 죽어도 살아날 거야 너희들이 죽지 않는 한

연세대학교 내 여학생 공동체 소개

마녀동맹 _ 문과대학 5반 여학우 모임

안녕하세요, 문과대 불꽃 5반 여학우들의 모임인 마녀 동맹에서 장을 맡고 있는, 사회계열 2학년 정연경이라고 합니다. 본격적인 저희 모임의 소개에 앞서,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총여학생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꽃 5반 여학우들이 모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소박하지만 의미심장한 궁금증을 계기로, 2003년 겨울, 저희 마녀 동맹은 탄생하였습니다. 현재 05학번 뿐 만 아니라 03, 04학번을 포함하여 총 25명의 여학우들이 모여 활동하고 있으며 세미나와 대화 프로그램, 문화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유독 여학우들의 모임을 고집하는가?"

저희 마녀 동맹뿐만 아니라 많은 여학우들의 모임에게 던져진 공통된 질문이라 생각됩니다. 사회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저희 대학생들의 일상 속에서 아직까지 여성들간의 교류가 저조한 것이 현실이며, 남성들과의 생리적·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공유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저희 마녀 동맹은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하여 우선적으로 불꽃 5반 내의 여학우들간의 네트워크를 향상시키는 것을 가장 큰 취지로 삼고 있으며, 앞으로 저희 반 내에서뿐만 아니라 교내의 다른 여학우들과도 교류하여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마녀 동맹의 활동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 **세미나** : 선배들과 후배들이 같이 모여서 혹은 소규모 그룹으로 나누어서 같이 다루어 보고 싶은 주제를 선정하여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 현재까지 다루었던 주제-대학 생활, 위안부 문제, 여성주의, 마르크스주의, 학벌사회



• **대화 프로그램** : 한 가지 주제를 잡고 선배배들이 모여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특히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고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치료 방법이다' 라는 믿음을 전제로 마녀들 한 명 한 명씩 돌아가며 자신의 얘기를 하며, 나머지 마녀들은 그 얘기를 귀 기울여 들어 주고 조언도 해줍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희 마녀 동맹의 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마녀들간의 정을 더욱 돈독히 해주고 있습니다.

• **문화 활동** : 여성 영화제 관람 등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진행하며 정기적으로 마녀들끼리 뒤편이도 가지고 있습니다^^

○ 그 외에도 일기 게임,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으며 저희 마녀 동맹에서는 각자 실명이 아닌 자신이 좋아하거나 특정한 의미가 부여된 이름 혹은 별명을 정하여 구성원들끼리 서로를 부를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녀 동맹은 항상 열려있으며, 여학우들 간의 교류에 관심 있으신 분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정 _ 사회과학대학 6반 여학우 모임

미정 모임을 소개합니다~

새내기 후배들이 들어오기 전, 정말 기대 많이 했었죠. 많이 친해져야지.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수다도 떨고 고민도 이야기 하고, 나름 노력도 해 보았지만, 다가서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데요. '선배'의 권위 의식 때문이었을까요. 다른 곳에서 만난 언니들과 친해지는 것은 어렵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반에서는 언니들과 친해질 수 없었고, 여자후배들과도 친해지는 것이 어려웠어요. 만날 일도 많지 않았지만, 어쩌다 함께 만나서 이야기해도 왠지 서로 어렵고 피상적인 이야기만 나누게 되고....., 더 이상 남자후배들과 술 먹고 밤새 이야기했다는 남자동기들을 부러워하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술 먹고, 게임하고, 술 먹고, 응원하고, 술 먹고, 밤새고, 그 진부한 놀이문화를 벗어나서 함께 즐거울 수 있는 어떤 것들을 해보고 싶었죠.



그래서 아직 이름이 '미정'이라고, 반 커뮤니티에 소모임 게시판을 만들고 동을 띄웠습니다. 그 전에 05학번 여자친구들과 '봄소풍 가자, 핼짱방 가자.'며 이야기도 많이 했었고, 서로 만나고 싶은 욕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웬지 반의 선배들이 이상한 리플을 달더군요. "편 가르지 말라", "어긋난 의도로 벗어나지 말라" 등등. 무슨 소린가 싶어 이야기를 해봤더니, "여자들에게서 모여서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더러운' 여성주의 반에 퍼트리는 것 아니냐, 남자를 배제시키는 이유가 뭐냐" 그냥 여자후배들과 만나고, 친해지고 싶은 것이라 아무리 말을 해도 남자를 배제 말라고 계속 요구하더군요. '그들'의 축구모임에 온 여학우는 구석에서 응원하도록 시키면서 말이지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게시판에서 서로 글 올리며 이야기를 하는데, 익명게시판에 어느 남자후배가 저를 욕하는 글도 올라오고, 대체 그냥 모여서 놀겠는데 어째서 그렇게 심하게 다같이 반대를 하는지 이해가 안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고, 우리를 옹호하는 많은 사람들의 글이 올라오고, 결국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핼짱방에 가서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이었죠. 이후로 여러 차례 함께 모여 이야기도 하고, 여름엔 다 같이 엠터도 갔다 왔습니다. 요즘 또 만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구요. 미정 모임을 통해 서로 알 수 있었고, 대화를 할 수 있었고,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해서 활동해야겠지요. 다른 놀이문화를 만들어 가기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해 볼 것이고, 서로에게 힘을 주며 활동을 해 나갈 것입니다. 미정 여러분, 사랑해요♡

핼수다 사회학과 여성학회

모임 소개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여성학회 : Fem-sudha(이하 핼수다)는 2005년 3월에 만들어진 세미나 모임입니다. 핼수다는 연세대학교 학부 과정 내 여성학 관련 커리큘럼의 부족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시작된 사회학과 학생들의 자발적인 스터디 그룹으로, 학년이 다른 총 15명의 학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핼수다는 여성학과 관련된 다양한 커리큘럼을 함께 나누고, 그에 관한 보다 심도 있는 학습을 하는 것을 모임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모임의 이름인 Fem-sudha는 여성주의를 뜻하는 'Feminism'과 마시는 이에게 생명력을 전한다는 신비의 감로수 'Sudha'의 합성어로서, 여러 가지 복잡한 사회적 쟁점에 대한 Feminism적인 고찰을 바탕으로, 여자와 남자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보다 좋은 세상에 대한 함께 꾸는 꿈을 의미합니다.

활동 소개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여성학회 : Fem-sudha는 앞으로 여성학과 관련한 다양한 서적을 두루 읽고 함께 토론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사회적 현상으로부터 직접 쟁점을 찾고, 그를 해결하기 위한 일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함께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처럼 과 마찬가지로 매주 1회의 정기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며, 이와는 별도로 보다 작은 단위에서의 자율적인 스터디 모임을 통해 매 주 텍스트 분석과 발제의 심도를 높여갈 계획입니다. 또한 정기적인 모임 중 한 학기에 2번 특강을 듣거나 여성 영화제를 보러 가도록 할 것입니다.

• 세미나의 목적과 현재까지의 진행사항

본 세미나의 가장 큰 목적은 물리적인 차원의 '성차'가 아닌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의미의 '성차'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에 있습니다. 차이를 넘어 차별의 근거가 되고 있는 '성차', 그것을 형성하는 다양한 사회적인 제도와 장치, 문화적 기제들에는 무엇이 있으며 이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사회적으로 구성된 개념으로서의 성을 이해하는 것이 본 세미나의 주된 목적입니다. 나아가 '성차'를 형성하는데 매우 주요하게 활용되는 개념인 Gender, Sexuality, Embodiment가 문화적으로 어떻게 재현되는지에 관한 분석과 더불어 사회를 조직하는 성 권력에 대한 이해에 이르는 것 역시 본 세미나의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까지, "일상의 여성학", "여성의 몸에 대하여"를 주제로 세미나를 하고 있고, 현재 3번째 학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1학기, 여름학기, 2학기). 이 세미나는 앞으로도 매 주 수요일 5시에 할 예정이며, 겨울학기에도 활발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본지의 생각과
전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늘, 맘대로
와작와작
미디어 씹기

씩 씹하게 시작했던 2005년도 이제 거의 다 저물어가고 있다. 두껍던 월간 달력도 달랑 두 장밖에 남지 않았고 <그녀, 틈사이로 바람을 불다>도 마지막 호를 맞은 것 더불어 여성의 일, 여성의 꿈, 여성의 목소리, 여성의 삶, 그리고 여성을 행복하게 하고 여성임을 행복하게 받아들이게 해 주는 힘으로서의 여성주의에 대하여 아무런 고민도 생각도 관심도 없이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자들이 활개치고 다니는 꼴. 진짜 못봐주겠잖아! 라는 빈정대함을 원동력으로 이끌어 왔던 이 코너도 마무리해야 할 때다(분노는 나의 힘, 증오는 나의 힘, 하하하, 벌써 마지막이라니, 기분 참 묘하다. 끝날 때의 나,가 '시작할 때의 나'를 바라보며 '으이그, 도대체 뭘 한 거야, 벌써 끝인데'라고 궁시렁대는 것 같은

'도대체 뭘 한 거야'라는 말은 1차적으로 나에게 하는 말이다. 내가 가진 언어와 상상력이 더 힘있고 더 다양하고 더 폭넓었다면 더 많은 이야기들을 더 깊은 고민과 함께 나눌 수 있었을 텐데 나의 예전에도 빈곤하고 부족한 언어와 상상력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더 많이 읽고, 듣고, 공부하고, 부딪치고, 노력하고, 생각하고, 성찰했어야 했거늘, 더 하는 것은 고사하고 덜 해온 것 같다는 느낌에 한해가 저물어가는 지금, 가슴에 아쉬움이 외락 안긴다. 물론 자신에 대한 따가운 반성 곁에는 내가 얼마나 게으르고 모자란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돌아보게 해 주는 '여성주의'에 대한 감사함이 뭉게뭉게 떠오르고 있고 ^^

하지만 이 말의 대상이 나뿐만은 아니다. 코너를 시작할 때나 접을 때나 변함없이 여성의 일, 여성의 꿈, 여성

의 목소리, 여성의 삶, 그리고 여성을 행복하게 하고 여성임을 행복하게 받아들이게 해 주는 힘으로서의 여성주의에 대하여 아무런 고민도 생각도 관심도 없이 이상한 소리를 하여 활개치고 다니는 자들, 그런 자들이 써제끼는 글을 기사랍시고 딱하니 세상에 내놓는 언론들, 그 자들과 언론들이 설치면 살칠수록 신나라 좋아라 모니터 앞에 앉아 박자 맞추는 키보드 위리어들 역시 대상이다. 특히 요즘 심하게 거슬리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미디어의 열광적인 이상에 연애 창송이고 다른 하나는 이른바 여성 상위 시대 타령. 왜 이렇게 예들은 변하지도, 나아지지도 않는 걸까 도대체 뭘 믿고?

#1 나는 미디어가 이성애중심주의를 정상이라고 받아들이는 뿐만 아니라 옳은 것이라고까지 너무 자주, 무지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성애 연애를 신나게 부추기고 있음을 새삼 느끼고 있다. 물론 한편으로는 '새삼스럽게...' 싶을 만큼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현상이지만, 최근 들어 쏟아지는 온갖 '이성연애' 킬링 프로그램들과 이에 편승하는 미디어의 짝짜꿍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

미디어에 따르면-연애를 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가 좀 부족하거나 이상한 사람이거나 유독 인기나 매력 없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 좋은 '이성연애'를 안 할 리 없으니, 그러면 동성과 연애를 하는 사람은? 분명 이상한 사람이다! 정상이라면 동성과 연애를 할 리가 없잖은가. 얼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비정상이었거늘 뇌의 구조가 남들과 다르다거나 정상인에게는 분포되지 않는 호르몬이 분포된다거나 하는) 세상에 제대로 적용하지 못해

비틀어진 것일 테다. 그러니 주위에 동성애자가 있다면 나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음을 명시하고, 특히 동성의 동성에 치라면 언제 나를 덮칠지 모르니 조심해야 한다. 운운 아히고(한숨) 물론 이렇게 대놓고 말하진 않는다. 나를 재치있게 돌려 말한다고 하는데, 그 모습이 또 가관. 연애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남자 인터뷰이에게는 '아니 한창 여자 만날 때에 관심이 없으면 안 되죠? 혹시 어디 부족한 데라도 밤에 힘을 제대로 못쓰시는 거 아닌가요?'라는 응답이 여자 팬들이 많이 좋아해주셔서 기쁘다는 여자 인터뷰이에게는 '여자가 여자 좋아하면 싫어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라는 반응이 유머러스하고 돌아온다. 아, 끔찍한 호모포비아,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기는커녕 서로 다른 여러 가지를 정상과 비정상의 이분법 속에 집어넣고 거기에 가지까지 매기는 세상, 짜증지수 무한대폭상.

#2 언제부터가 술술 '여성' 한계는 없다, '금남의 구역 무너져, '몇년도 국가고시 몇십퍼센트 이상이 여성', '원원 시험 수석 또 여성' 등등의 제목을 단 기사들이 단골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갖게 되면서 고학력 여성들이 많아지고 여성의 사회 진출 비율이 높아져 여성이 사회의 중심 세력으로 떠올랐단다. 이에 따라 여권이 급속히 신장되었고, 이제는 이른바 양성평등이 도래한 사회가 이룩되었다. 정말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평등이란 것은 정확하게 오십 대 오십으로 나눈다는 것이 아니며, 오십 대 오십으로 딱 나누었다고 해서 반드시 평등한 것은 아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절대적으로 올바른 평등의 원칙이 있을 수 있을까? 오히려 그것은 주위 환경을 살피고,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의 차이를 세심하게 고려한 후, 맥락에 따라 융통성있게 적용해야 하는 개념이 아닐까. 진부한 예이지만, 남자 화장실밖에 없던 건물에 여자 화장실을 설치했다고 해서 '평등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인당 사용 시간을 고려해 칸의 수에 적절히 차등을 두어야 하고, 장애인용 칸은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 모두에 설치되었는지, 장애인이 화장실에 오는 것을 불가능하거나 어렵게 길을 만들어놓지는 않았는지 고루 살펴야 하지 않겠는가. 그 죽일놈의 여성상위시대 타령도 마친가지다. 예전에 비해 수가 많아졌다고, 가진 것이 많아졌다고 해서 정말 '평등'해졌는가? 물론 제도적으로 동등한 기회를

갖게 된 측면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예전에 비해 놀라운 권리 신장이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이다. '여권 신장'이라는 말도 참 볼수록 웃기는 말이다. 그 누구도 남자의 권리를 남권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냥 권리라고 할 뿐, 그러나 그 동등한 기회가 비슷한 결과까지 보장해 주는가? 지금 이 순간도 남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선택받지 못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수많은 여성들이 존재함을 구구절절하게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것만큼은 꼭 말해야겠다. 한 꺼풀만 벗겨보면 겉보기와 다른 실상을 쉽게 알 수 있으면서도, 사실에는 눈감고 파상적인 수량에 의거해 형식적인 평등을 잔살이라 외치는 너희들이야말로 정말 평등한 세상에는 있어서 안 되는 존재라는 걸.

...뭐, 결론은 항상 마찬가지다. 변하지도 나아지지도 않는 애들, 어쩔 수 없으니 남두고 그냥 보지 말 라는 식으로는 그 무엇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안그래도 부족한 언어를 가진 여성들이 순간의 편안함을 위해 감각 기관을 다 막아버린다면, 그나마 있는 언어조차 찾을 수 없게 될지 모른다는 것. 따라서 이걸 아니라고, 저건 잘못되었다고, 그건 틀렸다고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언어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것. 다양성과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여성주의의 감수성과 상상력으로, '무지개는 딱 일곱가지 색 뿐'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논리를 뒤집고, 허점을 찾아내고, 대안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

일년 간 미디어 씹는 길에 동참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자신의 언어를 만들고 채우기 위해 계속 앞으로 나아갈 분들의 건승을 기원한다. 마지막으로 '페미니즘의 도전정치'인 2005, 교양인의 한 구절을 옮겨 보며 글을 닫는다.

여성, 장애인, 동성애자...라는 사회적 위치와 삶의 경험은 주류의 시각에서 보면 열등함의 근원이고 극복되어야 할 장애이다. 그러나 반대로 억압받는 자의 시각에서 기존 사회를 보면, 이들의 타자성은 새로운 사회에 대한 상상력과 지성을 가능하게 하는 자원이 된다. 그래서 <중략> 이들이 자신의 경험과 노동에 근거하여 자기 언어를 갖기 시작하면 말할 수 없이 '똑똑해진다', 저항할수록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김영희**

by. **h**
마지막까지 모두 파이팅!

꿈만 먹고 살다가 1년 뒤에 돌아보니

팀장님께,

어느덧 2005년도 한 달만을 남겨놓고 있군요. 그리고 학교를 졸업한지도 1년이 다 되어 가고요. 이제는 1년이한 시간이 이제는 그리 무겁지도 거대하지도 않은 그저 "찰나"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따지고 돌아보면 이렇게 시간에 쫓기면서 여유 있게 호흡을 가지고 저의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게 사실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에게 올 한 해 극복해야 했던 가장 커다란 벽은 저의 거창하기 그지없었던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상치 받지 않고 좁히는 일이었다. 훌륭한 네트워크가 되는 일, 실무와 운동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가져가기를 훈련받는 일, 삶을 학교나 동아리가 아닌 보다 큰 틀 안에서 기획할 줄 아는 것, 회사에서 마초들에게 둘러싸였을 때 기선 제압하기 등등... 연초에 세웠던 리스트야 아마무지하게 길어서 저 백양로를 다 덮고도 말겠조. 게다가 이 판의 특성상 어느 한 조직에서 안정적인 장기적에 안착할 수 없다는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종종 백수가 되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던 겁니다. 아시다시피 청년실업률이 청년실업률 80%보다 더 높을지도 모르는 요즘, 이것 조금 저것 약간 할 줄 아는 여성 대졸자에게 순순히 돈 내밀어 줄 맘씨 좋은 사장들은 그리 많지 않으니까요. 사실 학교에 있는 후배들에게는 준거집단¹⁾을 만들라는 등, 여성주의자로서 용기 있는 스톤을 가지라는 등의, 자기개발에 도움이 되려며 온갖 사기를 쳐왔지만 제 앞가림조차 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것 아니면 안 돼? 이분법 너머에 무언가 있다

물론 그렇다고 여기서 타협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타협이 신념을 감추거나 그것을 굽히고 어떤 부당함에 억지로 손을 들어줄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한다면 말이죠. 제가 누군가요. 저의 예술감독님께서 "젠 너무 치우쳤어"라며 설레설레 고개를 흔들게 만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전 물론 눈치없이 그것을 칭찬이라 곧이곧대로 믿고 있답니다. 하하)

최근에 타로를 잘 볼 줄 안다고 주장하는 절친한 친구가 전로에 대한 타로카드점을 쳐주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무언가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주어졌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꿈같이 새겨들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타로 카드 중에 지혜와 예술을 관장하는 아테네 여신이 나왔는데 그녀는 절머리 "제발 머리 보라"고 강하게 조언하더군요. 저의 다양한 자원을 동원할 의지가 있다면 여러 가지 대안을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안들이 당장 눈 앞에 가시화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물론

"이거 누가 몰라?"라며 속에서는 또 애타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발을 동동 구르다고 해서 번갯불에 콩 구어 먹듯 돌파구가 멋들어지게 생겨주는 것은 아닐 테니까요. 그 사실을 이제는 점점 눈치채고 있는 요즘입니다."

안 그래도 이번 축제가 끝나고 앞길을 고민하고 있는 저에게 인권활동가들을 위한 국제회의 코디네이터를 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의가 들어오더군요. 이것 역시 프로젝트이고 프로젝트가 끝나면 또 매두기를 뛰어야 할 불행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대하는 것은, 지금까지 쌓아왔던 고민이나 여성주의적 마인드, 혹은 하다못해 여러 실무적 스킬들을 나눌 수 있는 또 다른 네트워크를 확보할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이죠. 이 네트워크들이 저미줄처럼 얹히다보면 쌓이게 되는 정보와 자원은 꽤나 많더군요. 물론 이와 같은 커리어는 몇 가지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그 한계가 사회적인 지위, 자본주의 사회에서 쉽게 적응할 수 있게 해주는 부의 축적, 세계적인 수준에서의 입산양명, 중산층 지식인으로서의 알맹한 지적 자존심 파위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면, 네, 분명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들로부터 점점 자신을 괴리시킬 수 있다면 그만큼 다양한 옵션들이 보이고 그에 만족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순진하게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여성주의자로 살기로 한 것이라 불편함을 기꺼이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하기로 한 것이니까요.

새해를 열기 위한 선물상자를 준비하자

물론 이러한 많은 여성주의자들 혹은 고민이 많은 여성들을 길러줄 수 있는 인력들을 잘 체계화하여 우먼파워(멘파워의 대체적인 개념이라고 할까요?)를 가질 수 있는 좀 더 큰 틀의 체계적인 노력과 정책이 필요한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나 축제 등의 계약적으로 일한다고 해서 보형도 안 되고 박봉을 받아도 된다는 식의 제도를 고친다면 좀더 편한 마음으로 많은 대안들을 찾아 일할 수 있겠지요. 또한 여성들 스스로 여성노동자나 여성사업자에 대한 네트워킹과 DB마련을 90년대부터 꾸준히 작업해오고는 있지만²⁾ 아직은 많은 여성들의 차이를 아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여성노동자인 나/우리로부터 다양한 피드백이 주어져야 하겠

지요. 사실 팀장님께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연초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답니다. 부끄럽게 고백하자면 여성주의적 마인드가 녹아난 자기계발 칼럼을 어딘가에 연재하고 싶었고 이를 바탕으로 나중에 여성 멘토-멘티를 이어 주거나 공연예술 쪽 인력풀을 개발할 수 있는 일종의 워크샵을 기획해보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저의 '급'에서 남들로 하여금 자신의 자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준다는 어렵습니다만 -- 일단 이것을 시초로 하여 현실과의 타협/비타협, 운동가/대기업, 자유/돈 등의 이분법을 훌뜨리고자 하는 욕심이 더 컸던 것이지요.

자, 이제 이 지난한 고민에 대한 편지를 줄일 때가 된 것 같아요. 편이 나면 올해가 가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꼼꼼히 정리해 보아야겠습니다. 특히 여성주의자로서의 저의 포지션이 가져다줄 수 있는 자원과 기회가 무엇인지 다스금 돌아보면서 학교를 졸업하고 여성주의자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되새겨 보려 해요. 여성주의자라는 포지션 자체가 당신이 남들과 다르게 살겠다는 각오가 되어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좀더 많은 옵션들을 찾아 해별 준비를 해야 하는 것.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간다면 그리 늦지는 않겠지요.

바로 해결책이 생기지 않는다면 손 뻗고 있어야 한다고요? 그렇다면 혼자가 아니라 같이 뻗수로 늘면 마음에 위안이되지는 않을까요? 너무 배부른 소리 한다고 비웃는 다 해도 어떤 종류의 적당히 지혜로운 낙관은 새해를 준비하는 여성주의자들에게 주는 선물이라 순진하게 믿으렵니다.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한 팀장님.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남은 2005년 잘 보내세요!

by. 고동

이제는 겁내지 말자

스물다섯 해는 보석을 연아해온 가난한 시간들.
이제 어떤 빛이 강하게 뿜어져 나올까

Ch. 3 여성주의자가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

1) 그레일, 통 사이로 바람 불다 1호 '어느 여성주의자의 좌충우돌 서바이벌 가이드' 참조

2) 그레일, 통 사이로 바람 불다 3호 '어느 여성주의자의 좌충우돌 서바이벌 가이드' 참조

3) 위민넷(<http://www.women-net.net>),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센터(<http://labor.womenlink.or.kr/>), 위민피아(<http://www.womenpia.com/>) 등의 홈페이지는 꾸준한 박람회 정보와 취업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여성주의로 승화: 마음-연두봉(www.unninet.co.kr/)과 같은 커뮤니티에는 회원들과 함께 여성주의자로서의 커리어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토론방을 열거나 지식공유를 이용하여 조언을 구할 수도 있다.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의 아주 특별한 문화 축제

3회 생존자 말하기대회

그녀들의 소란, 공감의 세상을 열다

생존자 말하기 대회는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이 자신의 피해경험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과 자신의 경험을 나눔으로써 지지와 격려를 받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고받는 집단적 치유의 장입니다.

말하기대회 본행사 2005년 11월 26일(토) 오후 2시부터

대학로 쏫대 박물관

2시~5시 / 전시 참여형 치유프로그램,

생존자 지원자를 위한 다양한 작품 전시

5시~9시 생존자 말하기 이야기,

마무리의식 (성폭력에 반대하는 발광마무리)

그녀들의 소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르르거리행사 2005년 11월 5일(토)

서울시내 곳곳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재미있고 유쾌한 방식으로

성폭력이야기를 전달하는 행사입니다.

▶ 전시 / ▶ 퍼포먼스 / ▶ 길거리 설문

때론 울고, 때론 분노하고,
때론 슬피고,
때론 기쁘고,
때론 웃고,
그녀들의
소란이
세상에
공감의 장을 열 것입니다.

온라인말하기대회 "속터진 금자씨, 말터지다" 2005년 10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

www.sisters.or.kr/speakout/index.php

자신이 겪은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온라인상에서 공유함으로써

일상의 삶에 불쑥 끼어든 폭력이 남긴 것들을 돌아보고, 새롭게 자신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장입니다.

▶ 내 경험 이야기하기 / ▶ 가해자 고발하기, 가해자 혼내주기 / ▶ 세상 사람들의 편견 / ▶ 나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

참가 및 문의는 tel.02-338-2890 (랑, 지선, 거북) / fax.02-338-7122

e-mail : speakout2005@hanmail.net

주최: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 후원: 여성가족부